

#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 나타난 중국 전통시기의 가치관념

박 미 애 \*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예지방식과 科學技術觀 |
| II. 예지내용과 世界觀    | V. 맺는말          |
| III. 예지과정과 社會人生觀 |                 |

## <국문 초록>

『太平廣記』 500卷은 중국 宋代 太平興國 연간에 李昉 등 12명이 太宗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중국의 설화집으로, 위로는 先秦兩漢 시대부터 아래로는 宋代 초까지 장장 7,000여 편에 달하는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과 수량 방면에 있어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서사 텍스트로, 당시 중국의 삼라만상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太平廣記』를 ‘소설의 바다[小說的淵海]’라 부르고 있다. 한편, 『太平廣記』 텍스트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 당시는 물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설화문학의 생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서 중국은 물론 한국의 소설문학 연구에 있어서 『太平廣記』 텍스트의 사료적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太平廣記』 텍스트의 위와 같은 사료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이야기 향유계층의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문화적인 의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未來豫知譚’을 통해 그 속에 묻어 있는 당시 이야기 향유계층의 삶에 대

\*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박사졸업 / meiai6@hanmail.net

한 인식태도와 문화적인 함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특히, ‘未來豫知譚’은 중국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다각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未來豫知譚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豫知內容’은 그들의宿命론적, 현세주의적, 순환주의적인 ‘世界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豫知過程’은 그들의 도덕관념, 행복관념, 가치관념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총체적인 ‘社會人生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豫知方式’은 자연, 지리, 산술, 의학에 대한 전통시기 중국 사람들의 ‘科學技術觀’을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未來豫知’와 관련된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들은 未來豫知譚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이야기의 향유계층인 전통시기 중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조, 논리 등의 의식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위에서처럼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시기 중국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사문학으로서의 전통적인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제어】 太平廣記, 未來豫知, 서사, 전통관념, 운명의식, 중국문화, 점복, 예언

## I. 머리말

『太平廣記』 500卷은 중국 宋代의 太平興國 연간에 李昉 등 12명이 太宗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중국의 설화집으로, 위로는 先秦兩漢 시대부터 아래로는 宋代 초까지 장장 7,000여 편에 달하는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太平廣記』는 ‘廣記’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과 수량 방면에 있어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서사 텍스트로, 당시 중국의 삼라만상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太平廣記』를 ‘소설의 바다[小說的淵海]’라 부르고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子

部·小說家類에 실린 「太平廣記提要」를 보면, 『太平廣記』의 이러한 소설사적인 가치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의 기원에 관해서 이미 잘 말해주고 있다.<sup>1)</sup> 이를 통해, 중국 소설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太平廣記』 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로 유입된 『太平廣記』 텍스트는 당시에 집필된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등의 설화적인 역사 텍스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太平廣記詳節』, 『太平廣記諺解』 등 축약본과 번역본 형식의 텍스트로도 간행되어 당시의 소설문학에 새로운 소재와 창작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 고대의 ‘小說’에 대한 개념은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小說’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소설의 기원에 대한 중국 東漢 시대의 문학가이자 역사가인 班固의 ‘稗官說’ 주장은 중국 고대의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인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sup>2)</sup> 당시의 집정자들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백성들의 생활과 풍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稗官’이라는 제도를 설립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실, 정식 역사 기록인 正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은 ‘항간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풍문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정식적인 역사기록에 포함된 것은 아마도 백성들의 감정과 생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어 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집정자들이 民情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오도록 파견 보냈던 ‘稗

1) [清] 永瑤, 紀昀 主編, 『四庫全書總目提要』, 海南出版社, 1999, p.731, “古來軼聞瑣事, 僻籍遺文咸在焉, 卷帙輕者, 往往全部收入, 蓋小說家之淵海也.”

2) [東漢] 班固, 『前漢書·藝文志』 第三十卷(載於『二十五史』), 上海古籍出版社, 1986, p.167,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途說者之所造也.”

官'의 역할과 그들이 수집했던 '巷間의 이야기'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는 전통 시기의 설화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옛날이야기[民間說話]'에 더욱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바탕으로, 『太平廣記』 텍스트 중에서 이야기 향유계층의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문화적인 의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未來豫知' 서사를 통해 그 속에 묻어 있는 당시 중국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인식태도와 가치관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 이러한 '追吉避凶'의 심리가 바로 '未來豫知'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의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절실한 '求福' 심리가 잘 나타나 있으며, 이야기의 향유계층인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가치 관념과 의식형태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未來豫知譚'이란 무엇인가? '未來豫知譚'은 '未來豫知 행위를 주요 모티브로 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를 통해서 장래의 상황을 미리 알게 된 사람이 겪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줄거리로 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은 6가지의 기본적인 서사요소를 가지고 있다. 중국학자 張衛中の 『『左傳』豫言探析』<sup>3)</sup>을 참고해 보면, 예언은 '豫測者', '豫測根據', '豫測

3) 張衛中, 『『左傳』豫言探析』, 『古典文獻與文化論叢』, 北京: 中華書局, 1997, pp.301-314.

方法’, ‘豫測對象’, 그리고 ‘豫測結果’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예언’의 위와 같은 5가지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未來豫知’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서사요소를 ‘豫知主體’, ‘豫知者’, ‘豫知方式’, ‘豫知內容’, ‘豫知過程’, ‘豫知結果’로 재구성하였다.<sup>4)</sup> 이러한 6가지 서사요소는 각각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미래를 알게 되는가?’, ‘미래의 어떠한 일을 알게 되는가?’, ‘미래를 알게 된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未來豫知譚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서사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 텍스트 속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未來豫知譚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豫知內容’은 이야기 향유계층의 ‘世界觀’을, ‘豫知過程’은 그들의 ‘社會人生觀’을, ‘豫知方式’은 그들의 ‘科學技術觀’을 잘 보여주고 있다. ‘未來豫知’와 관련된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들은 ‘未來豫知譚’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이야기의 향유계층인 전통시대 중국 서민들의 가치관과 신조, 논리 등의 의식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을 ‘예지내용’, ‘예지과정’, ‘예지방식’으로 분류한 후, 각각에 나타난 전통적인 관념과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 4) 필자는 일찍이 석사논문 「華北 “預知未來型” 故事研究」를 통해, 未來豫知譚의 구성요소를 ‘예지주체’, ‘예지조수’, ‘예지방식’, ‘예지내용’, ‘예지과정’, ‘예지결과’ 등 6개의 요소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朴美愛, 「華北 “預知未來型” 故事研究」, 北京師範大學 民俗學 碩士論文, 1999.)
- 5)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太平廣記』 텍스트는 2,281편의 ‘未來豫知譚’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7,000여 편에 달하는 『太平廣記』 전체 이야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太平廣記』 텍스트에 있어서 ‘未來豫知’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II. 예지내용<sup>6)</sup>과 世界觀

### 1. (天命 사상에 기반을 둔) 숙명론적 운명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있다고 믿는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 역시 대다수가 이러한 숙명론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定數類」에 속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러한 숙명론적인 운명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貧婦가난한 아낙네」라는 이야기를 보면, “一飲一啄, 系之於分”<sup>7)</sup>이라는 당시의 속담 한 구절이 나온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먹고 마시는 소소한 일이라도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숙명론적인 天命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의 귀천을 막론하고, 天命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즉,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결정한다.’는 천명 관념은 ‘天人合一’이라는 철학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통치자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해와 달, 그리고 별 등 天象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가늠해보았다. 중국 전통시기의 이러한 천명 관념은 유교의 “生死由命, 富

6)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의 서사요소 중 하나인 ‘豫知內容’은 크게 ‘개인의 일생운명’과 ‘(가족, 사회, 민족, 왕조, 국가 등)집단의 운명’, 그리고 ‘자연의 변화에 대한 예측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일생운명’은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겪게 되는 일련의 중대한 사건(출생, 혼인, 출세, 여행, 건강, 사업, 재물, 수명, 사망 등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당시 이야기 향유계층의 ‘운명’에 대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

7)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58, 「貧婦」條, 中華書局, 1961, p.1140.

貴在天[사람의 목숨은 운명에 달려 있으며, 부귀영화는 하늘에 달려있다.]<sup>8)</sup>라는 사유를 반영하는 ‘天意定命論’, 불교의 ‘因果應報’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因果定命論’, 그리고 민간신앙의 ‘天神 숭배’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며 하나를 이룬다.’는 ‘天人合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先天命定’이라는 숙명론적인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 자연의 법칙, 즉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 2. (저승보다 이승 생활이 더 좋은) 현세주의 세계관

중국의 속담에 “好死不如賴活[홀륭하게 죽는 것보다는 비참하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즉, 한국의 속담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죽은 정승이 산 강아지보다 못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중국 사람들의 현세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인간 세상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는 이승에서 생활하고, 죽어서는 저승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승과 저승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오고갈 수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이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중요시하였다. 저승, 즉 사후의 세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거나 바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보통 사람들이 예측하고자 했던 내용은 사후의 생활이 아닌 현실 생활에서의 문제였다. 중국 전통시기의 이러한 “삶을 애석해하고[生可惜也], 죽음을 두려워한

8) 孔子, 『論語』(載於 劉寶楠 撰·高流水 点校, 『論語正義』全二冊), 中華書局, 1990.), 「顏淵」, p.488.

대[死可畏也].<sup>9)</sup>는 현세중심주의 사고방식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민간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재생’, 즉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여전히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唐나라 때의 유명한 역술가 李淳風이 어느 날 太宗 황제를 찾아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황제는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李淳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마다 다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李淳風은 그 날 궁궐에 머물렀다. 그리고 황제는 아무런 잡념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잠시 저와 함께 다녀 오시지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황제는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저는 저승 일을 처리하는 이승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황제를 염라대왕에게 데리고 갔다. 염라대왕은 어떤 일에 관하여 황제를 심문한 후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다. 황제를 데리고 왔던 이승의 使者는 다시 황제를 데리고 저승을 빠져나왔다.** 한편, 황제가 승천하였다고 생각했던 궁궐에서는 애통해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때, 李淳風이 하늘[天象]을 살펴보며 “다들 울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가 깨어났다.<sup>10)</sup>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사후세계를 믿었던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생명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삶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貴生’ 관념은 특히 도교사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도교의

9) 張樹卿, 「略論儒,釋,道的生死觀」, 『東北師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8年第3期, p.77.

10)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46, 「授判冥人官」條, pp.1050-1051, “唐太宗極康豫, 太史令李淳風見上, 有淚無言. 上問之, 對曰: ‘陛下夕當晏駕,’ 太宗曰: ‘人生有命, 亦何憂也!’ 留淳風宿. 太宗至夜半, 上奄然入定, 見一人云: ‘陛下暫合來, 還即去也’ 帝問: ‘君是何人?’ 對曰: ‘臣是生人判冥事.’ 太宗入見, 判官問六月四日事, 即令還, 向見者又迎送引導出. 淳風即觀玄象, 不許哭泣, 須臾內寐.”

수행목적 역시 ‘養生’, 즉 ‘長生不死’로 귀결되었다. 전통시기 중국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生死에 관련된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였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시기에는 더욱 더 ‘죽음’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삶과 현실생활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3. (길흉화복이 돌고 도는) 화복순환관

한국과 중국의 故事成語에 “人間萬事,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 세상사의 吉凶禍福이 돌고 돈다.’는 화복순환(禍福循環) 현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錢鍾書는 『管錐篇』에서 “화복이 돌고 도는 것[禍福轉而相生]”을 “운명의 바퀴[命運車輪 - The Wheel of Fortune]”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11)</sup> 그의 말처럼, 중국의 민간에서는 ‘행복과 불행’, ‘좋은 일과 나쁜 일’, ‘부유와 가난’, ‘건강과 질병’, ‘장수와 단명’ 등 서로 대치되는 상황들이 결코 고정불변의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되는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순환적인 사고는 자연의 순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밤낮이 끊임없이 바뀌고 매년 사계절이 변화하듯, 그리고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잎이 지는 것이 반복되거나 동물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손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탄생 - 죽음 - 재생’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현상이 사람들의 인식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자연의 이러한 순환 현상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故天有四時五行 그러한 까닭에 세상에는 사계절과 오행이

11) 錢鍾書, 『管錐篇(共四冊)』 第二冊, 中華書局, 1986, p.463.

있고], 日月相推[해와 달이 거듭되며], 寒暑迭代[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其轉運也[그것을 순환이라고 한다.]<sup>12)</sup> 인간사의 길흉화복 역시 대자연의 이러한 순환법칙을 따르고 있다. “天下大勢[무릇 천하의 대세란], 分久必合[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合久必分[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이 된다]”<sup>13)</sup>. 중국 명나라 때의 유명한 문학가인 羅貫中의 소설 『三國演義』 첫 문장에 등장하는 이 말은 전통시기 중국 사람들의 길흉화복에 대한 ‘순환’ 관념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복순환’ 관념은 장래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당시 중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開元中二道士」라는 이야기에 도 이러한 관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唐玄宗 開元 2년, 梁州 도사 梁虛舟는 九宮法<sup>14)</sup>을 이용하여 張鷟이라는 사람의 장래운명을 점쳐본 후, “잡귀가 침범하여 복두성이 수명을 다한 것을 보니, 올해 당신은 일생일대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오.”라고 말해주었다. 한편, 安國觀 도사 李若虛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 張鷟에 대해서 점을 쳐보게 하였다. 그 역시 점을 쳐본 후에 “이 사람은 올해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오. 그래야 그 보다 더 큰 액을 피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훗날, 과연 두 도사의 말대로 張鷟은 御史 李全交의 탄핵으로 황제의 명을 받아 사형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刑部尙書 李日知 등의 간청으로 죽음을 면하는 대신 영남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로써 위의 두 도사가 말한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sup>15)</sup>

12)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18, 「孫思邈」條, p.1669.

13) [明] 羅貫中, 『三國演義』, 人民文學出版社, 2006.

14) 아홉 개의 별자리를 음양오행과 팔괘의 방위에 맞추어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

15)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16, 「開元中二道士」條, p.1657, “開元二年, 梁州道士梁虛舟以九宮推算張鷟云: ‘五鬼加年, 天罡臨命, 一生之大厄.’ …… 又安國觀道士李若虛不告姓名, 暗使推之. 云: ‘此人今年身在天牢, 負大辟之罪, 乃可以免. 不然, 病當死, 無有救法.’ 果被御史李全交致其罪, 勅令處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전통시기의 ‘화복 순환’ 관념은 양자 대립적인 면모와 양자 순환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운명은 좋은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그 기세가 한 풀 꺾이게 되고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을 인내하며 견뎌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예지과정<sup>16)</sup>과 社會人生觀

중국 민간에서의 ‘未來豫知’ 문화는 그들만의 인생가치와 행위원칙, 즉 ‘追吉避凶’의 가치를 志向하고 있다. 전통시대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황제는 ‘하늘의 아들[天子]’이었으며, 날마다 바라보는 하늘은 줄곧 그들의 ‘하느님[老天爺]’이었다. 중국 민간문화의 가치 근원은 바로 ‘하늘’이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출발한 가치 관념은 또 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인생 관념’을 낳았다.

#### 1. (선악이 분명한) 도덕관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숙명론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未來豫知’ 활동 역시

死. 而刑部尙書李日知 …… 請之, 乃免死. 配流嶺南. 二道士之言, 信有徵矣.”

16) ‘예지내용’이 ‘예지결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실현과정을 ‘예지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다양한 행동양식이 이야기의 결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때, 등장인물의 도덕적인 행위나 사고방식, 삶이나 운명에 대한 대응자세 및 태도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활동이었다. 그들은 장래를 예측해 본 후에, 정해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 인과응보 등의 도덕적인 가치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중국 민간에서의 도덕관념은 크게 유교의 道德倫理, 불교의 因果應報, 도교의 積善積德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교 사상 속에서 ‘未來豫知’ 활동은 ‘하늘의 뜻[天意]’을 알아보는 행동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뜻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災害 현상을 인간이 자행한 비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災異說’이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災異說’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唐代 사년 시월에 長安에서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고, 비와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百日이 넘도록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에 張易之, 張昌宗 등의 역적들이 誅殺을 당했고, 則天武后가 廢位되었다.<sup>17)</sup>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唐代의 則天武后와 그녀가 총애했던 張易之, 張昌宗 등의 奸臣들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하늘의 노여움을 샀으며, (오랫동안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천재지변을 가져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의 당사자들인 장씨 형제와 측천무후는 (하늘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효행사상 역시 유교적인 도덕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행윤리는 풍수사상과 결합하여 당시 중국의 민간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17)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39, 「張易之」條, p.1006, “唐長安四年十月, 陰雨雪, 一百餘日不見星. 正月誅逆賊張易之昌宗等, 則天廢.”

이러한 ‘盡孝[효를 다함]’ 윤리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 한 편을 예로 들어보겠다.

臨江이라는 마을에 劉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효심이 매우 깊어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어느 날, 그 마을에 洪水가 밀려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떠다니게 되었다. 劉京 역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울부짖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劉京의 일곱 식구를 모두 등에 업고 몇 십리를 헤엄쳐나가 높은 언덕이 있는 곳에 내려주고 사라졌다.<sup>18)</sup>

이처럼 유교의 도덕윤리와 행위규범은 현실적인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불교의 도덕윤리는 來世 사상을 바탕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인생의 가치와 의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因果應報 사상에서 말하는 “行惡下地獄[악행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고], 行善上天宮 [선행을 하면 천당으로 올라간다]”의 도리를 내세워 권선징악을 骨子로 하는 勸誡性 종교로 자리를 잡아왔다. 한편, 忠, 孝, 信 등의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도덕윤리나 慈悲와 布施를 베풀면 내세에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된다고 믿는 불교의 도덕윤리와 같이 도교에서도 積德積善이라는 도덕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교, 불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교는 종종 도덕적인 행위의 여부에 따라 수명의 增減이라는 결과를 수반한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感應類」의 이야기들이 이러한 도교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王虛之는 廬陵 西昌 사람으로, **13세에 조실부모 하였다. 그 후로 20년 동안 소금과 식초를 입에 대지 않았다. 훗날,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당신의 병이 곧 나을 것이오”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그 날 저녁 王虛之는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광채가 나고 뜰 앞의 굴나무에서 엄동설한인데**

18)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61, 「劉京」條, p.1163, “臨江郡民劉京, 孝行鄉里推敬. 時江水暴溢, 居者皆漂溺. 京負其母號泣. 忽有大龜至其前, 舉家七口, 俱上龜背. 然行十許里, 及一高岸, 龜遂失之.”

도 열매가 연이어 맺히는 것을 보고 **병이 나왔다. 이 모두가 그의 효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sup>19)</sup>

끝으로, 민간신앙을 통해서도 중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윤리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민간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운명에 대한 예지관념과 도덕관념은 공통적인 배경, 즉 ‘신령과의 소통’이라는 共通分母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예지’란 신령에게 자문을 구하는 행위이며, ‘도덕’이란 선행을 통해서 신령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sup>20)</sup>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未來豫知’ 활동을 통해 장래에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進退 혹은 取捨 선택에 있어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힘으로 권선징악의 결과가 생기기를 바래왔다. 이처럼, 중국의 민간신앙 역시 도덕적으로 뚜렷한 성향을 띄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운명 관념은 도덕관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善惡과 吉凶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였다.

## 2. (현실 생활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관념

앞에서도 말했듯이, 未來豫知譚은 이야기 향유계층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福’이란 무엇일까? 중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福’에 관한 해석으로, 『尙書』, 『洪範』에 기록된 “五福”의 개념을 들 수 있다.<sup>21)</sup>

19)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62, 「王虛之」條, p.1167, “王虛之, 廬陵西昌人. 年十三, 喪父母. 二十年鹽酢不入口. 後得重病. 忽有一人來詣, 謂之曰: ‘君病尋瘥.’ 俄而不見. 又所住屋室, 夜有異光. 庭中橘樹, 隆冬三實. 病果尋愈, 咸以至孝所感.”

20) 馬俊青, 「中國古代豫測文化對傳統道德的影響」, 『運城高等專科學校學報』, 2000年 第5期.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주로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을 말한다. 첫 번째로 말하는 壽란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말하는 富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말하는 康寧이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말하는 攸好德이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말하는 考終命이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福이 서로 어우러져야 幸福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위와 같은 五福의 관념을 중요시했던 전통시대 중국 사람들의 행복관념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도 부귀와 장수에 관한 내용<sup>22)</sup>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의 물질적인 안정과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높은 지위야말로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發福’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전통시기의 이러한 행복관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과 현실생활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추구해온 현실생활에서의 행복이란 인간 세상에서 더욱 잘 살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인생가치관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날마다 평온한 생활이 계속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러한 관념은 전통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의 민간사회에 깊이

21) 『尚書正義』(『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3.), p.193,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22) 『太平廣記』 텍스트 중 ‘出世’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로 卷153, 「袁滋」條, 卷181, 「李翱女」條, 卷224, 「王正君」條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財富’와 ‘長壽’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卷137, 「張氏」條와 卷162, 「鄭鮮」條, 卷276, 「周昭王」條 등이 있다.

뿌리박혀 있다. 한편,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精神勝利’ 가치관 역시 중국 민간사회에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전통적인 민속관념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왔다. 이러한 ‘知足樂世’의 가치관은 역시 민간의 숙명론적 운명관인 ‘樂天知命’과 그 맥락을 같이해왔다.

다시 말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만족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면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사고는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잘 나타나있다.

杜景佺이라는 進士 출신의 인품이 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었다. 훗날, 그가 門下省侍郎이라는 관직을 맡게 되어, 재상의 권력을 행사하던 때였다. 당시, 內史라는 관직을 맡고 있던 李昭德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강직한 성품으로 인하여 則天武后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杜景佺은 궁궐의 大殿에서 則天武后를 알현하게 되었을 때, 이소덕의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성격에 대해서 변호하였다. 이에 則天武后는 자신을 농락하였다며 크게 노하여, 杜景佺을 溱州刺史로 좌천시켰다. 杜景佺은 溱州로 막 부임을 하던 날, 길에서 접을 잘 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杜景佺이 훗날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三品の 관직까지 오르게 되지만, 자주색 관복[紫袍]은 입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杜景佺은 자주색 군복[紫衫]을 입은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sup>23)</sup>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命中注定[숙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인정함과 동시에, 운명에 복종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23)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16, 「溱州筮者」條, pp.1654-1655, “杜景佺, …… 剛直嚴正, 進士擢第. 後爲鸞臺侍郎平章事. 時內史李昭德以剛直下獄. 景佺庭稱其公清正直. 則天怒, 以爲面欺. 左授溱州刺史. 初任溱州, 會善筮者於路, 言其當重入相, 得三品而不着紫袍. 至是夏終, 服紫衫而終.”

생겼을 때, 소극적으로 坐視하지 만은 않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며,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내세의 영생이 아닌, 짧지만 아름다운 현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未來豫知’ 활동 역시 이러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V. 예지방식<sup>24)</sup>과 科學技術觀

전통시기의 중국에서는 천문, 점성, 점몽, 역법 그리고 점복 등 ‘未來豫知’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학기술을 다룬 문헌에서도 적지 않게 언급되어 있다. 이는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얼핏 보기에는 ‘未來豫知’와 관련된 이러한 전통적인 행동양식이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법칙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상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미신적인 ‘神秘文化’는 ‘非科學’ 심지어는 과학과 반대되는 ‘反科學’의 범주에 속해 있다. 전통시기의 ‘預測’ 관념은 과학적인 지식체계, 즉 실험을 통한 반복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우연한 판단을 기준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단일한 패턴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

24) ‘예지방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에 있어서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근거 혹은 방법을 일컫는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은 ‘예지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예언형’, ‘예조형’, ‘몽조형’, ‘점복형’, ‘참요형’, ‘풍수형’ 등 6가지 유형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 유형들에 등장하는 ‘예지방식’들을 분석해보면 천문, 자연, 지리, 점복, 산술, 의학 등 당시의 과학적인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부합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측’ 활동이 성행했던 이유는 전통시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5)</sup>

『太平廣記』 텍스트에서는 ‘未來豫知’라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개념이 사실은 ‘예측’ 활동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 지리, 산술, 의학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서도 ‘未來豫知’와 관련된 신기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자연 – 天文, 占星, 氣象, 生物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의 발전은 옛날 사람들의 ‘未來豫知’ 활동에 대한 自然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未來豫知’ 활동을 통해서,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 즉 객관적인 세계와 개인적인 운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변화, 동식물의 생태와 氣象, 氣候 등 人間事와 연관이 깊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 기록과 경험들을 천문학, 점성학, 기상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으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인간사의 길흉 변화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삼아왔다.

먼저,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未來豫知’ 활동은 ‘하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대의 천문학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天文’이라는 단어는

25) 衛世平, 「古代豫測文化對科學認知的負面影響」, 『學者沙龍』, 2005年 第2期.

『周易』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sup>26)</sup> 이 말을 살펴보면, 천문과 인문이 사실상은 근원을 같이한다는 의미이다. 즉, 천문으로 인문을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이치로 사람의 도리를 따져볼 수 있으며, 천지의 변화를 통해 인사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중국 고대의 천문은 학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생산, 생활, 학술 등의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래서 천문을 연구하던 목적은 바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늘에서 정해주는 적절한 시기와 부합할 수 있도록, 즉 ‘天人合一’의 최고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 전통시기의 점성술은 천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별자리와 별의 운행을 관찰했던 목적은 주로 달력을 제작하고 節氣를 정확히 계산하여, 생산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안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비로운 하늘의 뜻을 예측하여, 인간의 정치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하늘의 뜻을 통해 앞으로의 정치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았다.<sup>27)</sup>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이처럼 점성술이 정치 활동에 이용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唐나라 시기에 則天武后 정권을 반대하던 徐敬業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킬 당시,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형태를 보니, 뒤죽박죽으로 된 것이 마치 광주리와 비슷하였다. 그러다가 삼일 후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徐敬業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다.<sup>28)</sup>

26) 『周易·賁·彖傳』(趙建偉 等譯註, 『周易今注今譯』, 商務印書館, 2010.), p.212,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27) 劉韶軍, 「試論中國古代占星術及其文化涵義」, 『華中師範大學學報(哲社版)』, 1993年 第2期.

28)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43, 「徐敬業」條, p.1024, “唐徐敬業舉兵, 有大星蓬蓬如筐籠, 經三宿而失. 俄而敬業敗.”

기득권층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徐敬業’이라는 인물은 反逆을 일으킨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하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위의 이야기에 나타난 별자리의 異常 현상은 당시 지배층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자연현상에 대한 조작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전통시기의 중국에서는 점성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요한 정치 사안을 결정하거나 국가 혹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는데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배층에 의해서 일종의 학문적인 체계로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점성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성학은 비과학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별자리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계산에서 비롯된 점성학을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상이나 기후의 변화를 통해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나 인간사의 길흉변화를 예측하는 기상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에서 「水災」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다.

당초, 鄧州 지방의 三鵝口라는 지역에서 어린 아이 두 명이 서로 물을 뿌리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크고 기다란 뱀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로 찍고 화살을 쏘아 그것을 쫓아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대야로 쏟아 부은 듯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이백 여 가구의 집들이 물에 잠기에 되었다. 한편, 어린 아이와 뱀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sup>29)</sup>

위의 이야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을 뿌리며 놀고 있는 장면을 통해 비가 내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類感呪術’, 즉 ‘유사의 법칙에 의거해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주술’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sup>30)</sup> 한편, 뱀의 출현 역시 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뱀은 용의 初生으로, 중국의 민간에서 뱀은 비를 주관하는 靈物인 용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하여 위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하늘에서는 곧 큰 비가 내릴 조짐[검은 구름]을 보인 것이다. ‘비’에 관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은 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기의 농업 생산 활동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강수량은 水災를 가져왔고, 너무 적은 강수량은 가뭄을 일으켰다. 이러한 기상학적인 관찰을 통해,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생산과 생업 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과학 지식을 제공 받아왔다.

끝으로, 동식물의 생태 변화를 통해서 날씨 변화나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사의 길흉 변화를 예측하는 생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에도 이와 관련된 속담이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棗子塞鼻孔[대추 씨의 크기가 코구멍에 들어갈 정도이면], 懸樓閣却種[종자를 높은 곳에 매달아 두고 씨뿌리기를 늦추어야 한다]”, “蟬鳴蛭蠃喚[매미가 시끄럽게 울 때], 黍種糕糜斷[기장쌀을 심으면 흉년이 든다]”, “鵲巢下近地[백조가 둥지를 낮게 틀면], 其年大水[그 해에 홍수가 진다]”<sup>31)</sup> 등의 속담은 동식물의 이상한 행동이나 현

29)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40, 「水災」條, p.1009, “…… 初鄧州三鵝口見二小兒以水相潑, 須臾, 有大蛇十圍已上, 張口向天. 人或有斫射者, 俄而雲雨晦冥, 雨水漂二百家. 小兒及蛇, 不知所在.”

30) 프레이저(Frazer, James George) 저·이상일 역, 『황금의 가지 (상,하)』, 을유문화사, 1997.

상을 통해 한 해 농사의 풍흉이나 자연재해 등을 예시해주었다. 이처럼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변화에 대한 반응이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의 예측 능력이 인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주장 역시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지리 - 地理, 建築, 環境

전통시기의 중국에서는 지리학적인 내용들이 주로 風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풍수 역시 이러한 지리 방면의 과학적인 지식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개념이기도 하였다. 풍수는 堪輿, 相地, 相宅, 地理 등의 명칭으로도 불렸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풍수가 地理, 建築, 環境 등의 내용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중국 전통시기의 풍수 사상을 완전히 미신으로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여전히 심오한 과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의 중국 사람들은 풍수를 “地理之學[지리에 관한 학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풍수를 잘 보는 사람을 “地理先生”이라고 불렀다. 풍수는 주로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장소의 환경 상태를 알아보는 陰宅 풍수와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환경 상태를 알아보는 陽宅 풍수로 나뉜다. 이러한 연유로 현대에 와서는 風水學을 環境科學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풍수와 지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세, 지형, 지표 등 풍수에 관한 상당수의 내용들이 지도 제작, 지형 측정, 지질학, 지형학 등 고대 지리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특히, 풍수선생이 제작한 풍수지도와 나침반, 줄자와 렌즈 등의 지리학 관련 도구들도 지도 제작

31)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39, 「默啜」條, p.1006.

과 지리 측정 등을 위한 지리학 방면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지형이나 토질 등 지리학적인 요소의 관찰을 통해서 明堂을 선택하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가 적지 않다.

당시, 吏部侍郎이라는 벼슬을 하던 楊恭仁이라는 사람이 부친의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잘 보는 풍수 선생을 대여섯 명 모셔왔다. 모셔온 풍수 선생들은 전국 각지의 풍수 방면의 전문가들로서, 그들 사이에서도 의론이 분분하였다. 제각각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다른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楊恭仁은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어느 정도 풍수를 볼 줄 아는 사람 한 명을 보내 원래 이장을 하려고 마을 먹었던 장소의 사방을 측정하여 지형을 세심히 기록하고, 그 곳의 흙을 조금씩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담은 흙을 풍수 선생들에게 보여주며, 각각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런 후, 지형에 대한 관찰 기록과 풍수 선생들의 의견을 대조해보았다. 그들 의견의 대부분이 기록된 내용과 달랐다. 오로지 舒綽이라는 사람만이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을 하였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다른 풍수 선생들은 그의 실력에 대해서 탄복하게 되었고, 楊恭仁은 그들에게 각각 비단 열 필씩을 주고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후, 舒綽은 楊恭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제가 알려드리는 땅의 五尺 아래에는 五穀이 묻혀있답니다. 만약 그 중에서 어느 한 종류의 곡식이라도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입니다. 그 곳에 묘지를 세운다면 대대손손 높은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sup>32)</sup>

한편, 지형과 지세는 산맥, 하천, 풍향, 일조량 등의 자연적인 지리조건과 함께 도시나 마을, 그리고 가옥 등 건축물의 입지와 방향을 선택하는 陽宅 풍수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 건축학의

32)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389, 「舒綽」條, p.3107, “吏部侍郎楊恭仁, 欲改葬其親. 求善圖墓者五六人, 并稱海內名手, 停於宅, 共論藝, 互相是非. 恭仁莫知孰是, 乃遣微解者, 馳往京師, 於欲葬之原, 取所擬之地四處, 各作曆, 記其方面, 高下形勢, 各取一斗土, 并曆封之. 恭仁隱曆出土, 令諸生相之, 取殊不同, 言其行勢, 與曆又相乖背. 綽乃定一土堪葬, 操筆作歷, 言其四方形勢, 與恭仁曆無尺寸之差. 諸生雅相推服, 各賜絹十疋遺之. 綽曰: ‘此所擬處, 深五尺之外, 有五穀, 若得一穀, 即是福地, 公侯世世不絕.’”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藏風得水’, ‘背山臨水’ 등을 이상적인 건축 환경으로 꼽았다. 더 나아가, 평면적인 배치와 창문의 방향, 우물과 배수, 부엌과 화장실 등 기타 부수적인 생활 설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풍수를 ‘환경선택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陽宅 풍수에서는 건축에 적합한 기후는 물론 전체적인 지리 환경 조건을 따져 사람들의 생활에 적합한 실내, 실외의 생태적인 환경을 모색하였으며, 陰宅 풍수에서도 역시 산과 물이 있고, 배수가 잘 되며, 땅이 부식되거나 퇴적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보면, 풍수란 환경에 대한 길흉의식을 반영한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다.<sup>33)</sup>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일찍이 桑道茂라는 사람이 尙書의 벼슬자리에 있던 溫造라는 사람의 新昌里 주택에서 머무르고 있을 당시였다. 주택의 정원에는 두 그루의 커다란 측백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桑道茂는 나무를 보면서, **“만약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고목이 무성하면, 반드시 베어내야 합니다.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이 황폐해지고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운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수 십 근에 달하는 쇠몽치 한 덩어리를 나무 밑에 묻어 좋지 않은 기운을 누르고자 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길, “훗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살다가 만약 내가 땅에 묻은 이 쇠몽치를 꺼내게 된다면, 그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될 것입니다.” 훗날, 溫造는 桑道茂가 살았던 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집을 보수하던 중, 땅 속에서 桑道茂가 묻었던 쇠몽치를 파내게 되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溫造는 죽음을 맞이하였다.<sup>34)</sup>

33) 劉沛林, 『風水 - 中國人的環境觀』, 上海三聯書店, 1995.

34) 【宋】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144, 「溫造」條, p.1035, “新昌里尙書溫造宅, 桑道茂嘗居之. 庭有二栢樹甚高. 桑生曰: ‘夫人之所居, 古木蕃茂者, 皆宜去之. 且木盛則土衰, 由是居人有病者, 乃土衰之致也.’ 於是鐵數十鈞, 鎮

위의 이야기는 ‘風水林’에 관한 이야기로, ‘壓勝’<sup>35)</sup>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택의 불길한 환경을 개조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그루의 고목은 ‘風水林’에 상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택을 건축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나무를 심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나무들은 주택의 元氣를 훼손하는 흉물로 변하게 되었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壓勝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풍수란 중국 전통시기의 지리과학 방면의 인식 및 이론 체계로서, 당시 중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 3. 산술 - 曆法, 陰陽五行

算術은 算數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算命, 術數 등으로 불리면서 陰陽이나 卜筮 등에서 길흉을 점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말하기도 한다. 전통시기의 중국 사람들은 수리적인 체계를 통해서도 인사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 군사, 문화, 과학기술 등 당시 사회의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중국 고대 수학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산술은 일종의 神秘化된 ‘定數’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定數란 ‘정해진 수량’이라는 의미의 수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타고난 운명’, 즉 ‘숙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

於栢樹下. 既而告人曰: ‘後有居, 發吾所鎮之地者, 其家長當死.’ 唐大和九年, 溫造居其宅. 因修建堂宇, 遂發地, 得桑生所鎮之鐵. 後數日, 造果卒.”

35) 陽宅이나 陰宅의 風水 공간에서 부족하고 허한 곳을 고치거나 보충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裨補 風水라고 하며, 지나치게 강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누르거나 덜어내는 것을 鎮壓 風水라고 한다.

우리는 ‘未來豫知’ 활동이 수학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술적인 예측은 일종의 확률에 의한 예측으로, 과학적인 확률에 의한 예측에 버금가는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영적이며 미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算命이라고 불리는 占術 방식은 철학적인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점차 체계화되어 命理學이라는 학문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전통시기의 산술과 수학은 사실상 하나의 계통으로, 점술가 자신이 수학자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점술가이자 수학자였던 李淳風은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唐 왕조의 太史였던 李淳風이 새로운 曆法에 대해서 감수를 보고 있을 당시였다. 그는 일식이 나타나는 시간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여겼다.** 太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李淳風을 추궁하며 말하였다. “만약 네가 말한 그 날에 일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겠느냐?” 이에 대해, 李淳風은 “만약 일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되어 太宗과 李淳風은 뜰에 나가 기다렸다. 太宗은 李淳風에게 “지금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서 告別 인사를 하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다. 李淳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벽을 비추게 되면, 그 때 일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李淳風의 말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식이 나타나게 되었다.<sup>36)</sup>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전통시기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점술이나 산술 등의 예측활동을 통해서 과학[수학]적인 내용을

36)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76, 「李淳風」條, p.479, “唐太史李淳風, 校新曆, 太陽合朔, 當蝕既, 於占不吉. 太宗不悅曰: ‘日或不蝕, 卿將何以自處?’ 曰: ‘如有不蝕, 臣請死之.’ 及期, 帝候於庭, 謂淳風曰: ‘吾放汝與妻子別之.’ 對曰: ‘尚早.’ 刻日指影於壁: ‘至此則蝕.’ 如言而蝕, 不差毫發.”

간추려내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의 점술과 수학은 대부분이 비슷한 계산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주판, 저울, 자 등의 산수용 도구들은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점술용 도구로도 활용되어 왔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산수용 계산 도구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산술에 능한 眞玄兎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상시에 자신의 수명을 계산하여 벽에 써놓았다. 그런데 자신이 계산해 놓은 날짜보다 하루 먼저 죽었다.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자,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편이 수명을 계산하고 있을 때, 산(算) 가지 한 개를 떨어뜨린 것을 보았지만 방해가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로 하루 먼저 돌아가셨다오.”<sup>37)</sup>

위에서처럼, 점술의 과학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중국 儒學 경전 중의 하나인 『周易』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周易』은 유학의 철학적인 해석과 신비한 占術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과학과 종교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유교의 경전이다. 특히, 『周易』 중의 五行, 六爻, 八卦 등의 신비화된 숫자 개념은 중국 고대의 수학 계산법에서 유래되었다. 예를 들면, 魏晉 시대의 수학자 劉徽는 『九章算術』의 序文에서 “九九之術은 『周易』에서 말하는 六爻의 변화와 서로 맞아 떨어진다”<sup>38)</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수학적인 계산법은 전통시기의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한 ‘점술’로도 이용이 되었다. 반대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던 算術 역시 중국 수리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7)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15, 「眞玄兎」條, p.1646, “漢安定皇甫嵩眞玄兎曹元理, 并善算術, 皆成帝時人. 眞常日算其年壽七十三, 於綏和元年正月二十五日晡時死. 書其屋壁以記之. 二十四日晡時死. 其妻曰: ‘見算時常下一算, 欲以告之, 慮脫有旨, 故不告, 今果先一日也.’”

38) [魏晉] 劉徽, 『九章算術』(郭書春 等校点, 『算經十書(共二冊)』 卷1, 遼寧教育出版社, 1998.), “作九九之術, 以合六爻之便.”

## 4. 의학 - 中醫, 心理

중국 전통시기의 醫術 역시 ‘未來豫知’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중국 고대의 ‘醫術’은 ‘巫術’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晉 시대의 郭璞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最古의 地理書인 『山海經』에 “開明東有巫彭, 巫抵, 巫陽, 巫履, 巫凡, 巫相, ……; 皆操不死之藥以距之.”라는 구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郭璞의 註釋<sup>39)</sup>처럼 ‘중국 고대의 巫堂은 영적인 의술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시기의 중국에서 행해지던 점복, 축귀, 굿 등의 무속 의식은 ‘의술’과 함께 진행되면서 질병을 쫓아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 실린 무속적인 ‘逐鬼’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의술에 능한 徐嗣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을 가진 할머니가 찾아왔다. 몇 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徐嗣伯은 할머니를 진맥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이러한 병을 ‘尸注’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베개를 가져다 물에 끓여 마시면, 증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오래된 무덤을 찾아가 죽은 사람의 베개 하나를 찾아내었다. 베개는 이미 낡아서 반 이상이 너덜너덜해졌다. 할머니는 그것을 가져다 물에 끓여 마신 후,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sup>40)</sup>

‘尸注’는 중의에서 말하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환자가 죽은 후에도 그 病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급기야는 한 가족이 모두 죽는다고 하여 ‘귀신병’이라고도 말한다. 이처럼, 병균을 귀신으로 간주하여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逐鬼’ 의술은 중국 전통시기의 무속신앙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39) [東晉] 郭璞, 『山海經·海內西經』(袁珂 譯註, 『山海經註譯』, 貴州人民出版社, 1991.), “這幾巫都是神醫.”

40)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18, 「徐嗣伯」條, p.1667, “徐嗣伯字德紹, 善清言, 精於醫術. 曾有一嫗, 患滯疾, 積年不差. 嗣伯爲之診疾曰: ‘此屍注也, 當須死人枕煮服之可愈.’ 於是就古塚中得一枕, 枕以半邊腐缺, 服之即差.”

한편, 중국의 전통 의술인 ‘中醫’에서 강조하는 “望[보고], 聞[듣고], 問[묻고], 切[맥박을 짚는다]”라는 네 가지 진단법[四診] 역시, 占術家나 觀相家의 사람 외모와 행동에 대한 관찰방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의 외모와 형체, 말투, 외부에 대한 반응, 눈동자의 맑기, 의식 상태 등을 살펴서 그 사람의 장래 운명을 가늠해보는 관상술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신체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래의 운명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얼굴 氣色과 인체 내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유무의 관계는 이미 中醫 분야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最古의 의학 서적인 『黃帝內經』을 보면, 오장육부의 상태와 얼굴 기색에 대해서 묘사해놓은 기록이 있다. “肝熱病者[간장이 안 좋은 사람은], 左頰先赤[왼쪽 뺨이 먼저 붉어진다]; 心熱病者[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顏先赤[얼굴 전체가 먼저 붉어진다]; 脾熱病者[비장이 안 좋은 사람은], 鼻先赤[코가 먼저 붉어진다]; 肺熱病者[폐장이 안 좋은 사람은], 右頰先赤[오른쪽 뺨이 먼저 붉어진다]; 腎熱病者[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頤先赤[턱이 먼저 붉어진다].”<sup>41)</sup>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觀相을 잘 보는 어떤 연로하신 스님 한 분이 뛰어난 제자를 키우기 위해, 특이한 수련 방법을 실행하였다. 어두운 방 안에 五色 비단을 걸어두고, 제자로 하여금 들어가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조금씩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색깔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다섯 가지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오색을 분별**

41) 『黃帝內經·素問·刺熱篇』(田代華 整理,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2007.).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밝은 대낮에는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게 된다.”<sup>42)</sup>**

위의 이야기는 中醫에서 말하는 ‘望診’의 진단 방법이 관상가의 ‘未來豫知’ 활동에 이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꿈에 관한 전통시기의 ‘未來豫知’ 활동 역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심리학’ 혹은 ‘심리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트(Freud Sigmund)는 『꿈의 해석』<sup>43)</sup>이라는 책에서 “꿈은 정신적인 증상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며, 심리치료에 대한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적이 있다. 현대 의학의 각도에서 말하면, 꿈은 한 사람의 잠재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인 것이다. 즉, 꿈이란 어떤 사람의 평상시의 바람[소원]이나 심리상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太平廣記』 未來豫知譚 중 「司馬相如」와 「鄭玄」에 관한 꿈 이야기가 그러하다.

前漢 시대의 뛰어난 문장가인 司馬相如是 어느 날 武帝에게 獻上할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써야할지 고심하였다. 그 날 저녁, 그의 꿈에 노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大人賦』를 지어, 신선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계시를 내렸다. 司馬相如是 꿈에서 깨어난 후 노인의 말대로 문장을 지어 武帝에게 헌상하였고, 큰 포상을 받게 되었다.<sup>44)</sup>

後漢 시대의 유학자인 鄭玄은 馬融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삼 년이 지나도 배운 것이 없었다. 훗날, 馬融은 鄭玄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어느 날, 鄭

42)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24, 「常袞」條, p.1722, “…… 有僧某者善占色, 言事若神. 袞惜其僧老, 命弟子就其術. …… 老僧遂於暗室中, 致五色綵於架, 令自取之. 曰: ‘世人皆用眼力不盡, 但熟看之, 旬日後, 依稀認其白者. 後半歲, 看五色. 卽洞然而得矣.’ 命之曰: ‘以若暗中之視五綵, 廻之白晝占人.’”

43) [奧地利] 弗洛伊德·西格蒙德, 『釋夢(夢的解釋)』, 商務印書館, 1996.

44)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76, 「司馬相如」條, p.2175, “司馬相如, 字長卿. 將獻賦而未知所爲, 夢一黃衣翁謂之曰: ‘可爲『大人賦』, 言神仙之事.’ 賦成以獻, 帝大嘉賞.”

玄은 나무 그늘 밑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선잠이 들었다. 그 때,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칼로 자신의 심장을 가르며 “너는 이제 학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난 鄭玄은 다시 馬融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典籍에 通達하게 되었다.<sup>45)</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인 司馬相如와 鄭玄은 평상시에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鶴首苦待 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형상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고, 급기야는 꿈의 ‘예시’대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꿈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훗날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C.G.Jung)에 의해서 또 한번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꿈이란 신화적인 집단무의식[原型]의 표출[表象]”<sup>46)</sup>이라고 말하며, 꿈에 의한 ‘예시’ 역시 신화적인 해석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현대의학의 영역에서도 ‘꿈’의 ‘예측기능’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이를 심리[정신] 치료의 목적으로도 이용하였던 것이다.

## V. 맺는말

본고는 전통시대 중국 서사문학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太平廣記』 텍스트 중 ‘未來豫知’ 서사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이야기가 성행하던 당시 중국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 종교신앙, 윤리가치관과 세계관 등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未來豫知譚은 중국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정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45)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卷276, 「鄭玄」條, pp.2175-2176, “鄭玄師馬融, 三載無聞, 融還之. 玄過樹陰下假寐, 夢一人, 以刀開其心, 謂曰: ‘子可學矣.’ 於是寤而即返, 遂洞精典籍.”

46) [瑞士] 榮格, 『分析心理學與夢的詮釋』, 上海三聯書店, 2009.

당시의 서사문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未來豫知譚에 나타난 ‘追吉避凶’의 심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로, ‘未來豫知’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太平廣記』의 ‘未來豫知’ 서사에 나타난 전통 관념은 ‘天人合一’이라는 철학적인 운명의식을 바탕으로, ‘현세중심’ 세계관과 긍정적인 인생관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관념 등의 가치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고는 전통시기 중국 민중들의 소박한 생활과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傳統 觀念’이라는 기층문화가 未來豫知譚을 통해서 어떻게 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사문학으로서의 ‘未來豫知譚’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본문은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 나타난 전통 관념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로써,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예를 들면,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을 논의하면서 당시의 다른 문헌에 대한 방증적인 자료제시가 부족하였던 점, 未來豫知譚이 유행하던 당시 사회배경과의 상호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던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음 기회를 빌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參考 文獻>

- [宋] 李昉 等編, 『太平廣記(共十冊)』, 中華書局, 1961.
- [東晉] 葛洪, 『抱朴子內篇』, 『抱朴子內篇校釋(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0.
- [東晉] 郭璞, 『山海經』, 袁珂 譯註, 『山海經註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1.
- [唐] 權德輿, 『玉臺體詩(十二首)』,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明] 羅貫中, 『三國演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 [東漢] 班固, 『前漢書』, 『二十五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尙書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3.
- [清] 永瑢·紀昀 主編, 『四庫全書總目提要』, 海口: 海南出版社, 1999.
- 劉寶楠 撰·高流水 點校, 『論語正義(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0.
- [魏晉] 劉徽, 『九章算術』, 郭書春 等校點, 『算經十書(共二冊)』,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8.
- 趙建偉 等譯註, 『周易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作者未詳, 『黃帝內徑·素問』, 田代華 整理, 『黃帝內徑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 朴美愛, 「華北“預知未來型” 故事研究」, 北京師範大學 民俗學 碩士論文, 1999.
- 陸 震, 『中國傳統社會心態』,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6.
- 謝貴安, 『中國諺語文化 - 諺語與古代社會』, 武漢: 華中理工大學出版社, 1994.
- 劉沛林, 『風水 - 中國人的環境觀』, 上海三聯書店, 1995.
- 錢種書, 『管錐篇(共四冊)』, 北京: 中華書局, 1986.
- [미국] R.David Arkush·董曉萍 譯, 『中國民衆思想史論』,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5.
- [오스트리아] Freud Sigmund, 『釋夢(夢的解釋)』, 北京: 商務印書館, 1996.
- [스위스] C.G.Jung, 『分析心理學與夢的詮釋』, 上海三聯書店, 2009.
- [스코틀랜드] J.G.Frazer·이상일 譯, 『황금의 가지(상,하)』, 서울: 을유문화사, 1997.

### Abstract

*Appeared to the notion of traditional chinese values of the story about predicting the future of 《Tai Ping Guang Ji》 / Park Mi Ae\**

The five hundred rolls of Tai Ping Guang Ji (Extensive records compiled in the Tai ping years) is China's earliest collection of classical novel which was compiled by Li Fang and other eleven people from the order of the emperor Tai Zong in two years of Tai ping xing guo in the Song Dynasty (A.D.977) and completed in the follow in year (A.D.978). It includes nearly 7000 stories from the Pre-Qin and Han Dynasty to the Five Dynasties and the early Song Dynasty, also can be said to be a very large collection of narrative text in content and quantity. Therefore, academic circles usually take this book as "the source of the novel". It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researchers of Chinese classical novels.

Tai Ping Guang Ji was introduced to the Korea in the Koryo period and was published into detailed section, annotation and so on various forms of abridgment and translation in the Joseon Times, promoting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classical novels. As a result, it has high historical value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Korea's literary research history.

Through the in-depth analysis of various traditional concept contained in the "predict the future" narrative of Tai Ping Guang Ji,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Chinese ideology and concept, namely logic, value, belief and other psychological problems when Tai Ping Guang Ji was widely popular. Especially, from the three factors of "predict the future" narrative --- predict the content, predict the process, predict the way this three point of view, it

---

\*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meiai6@hanmail.net

studies people's fatalism, secularism, the cycle of world outlook, the social life concept which contains morality, happiness and values, and the scientific concept which involves nature, geography, math, and medical science.

All in all, from the ideological background above, this research studies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value contained in the “predict the future” narrative in the traditional natural life culture carrier Tai Ping Guang Ji, also discussing the important meaning and reference of Tai Ping Guang Ji to us who live in a modern civilized society.

**【Key words】** Tai Ping Guang Ji, predict the future, narrate, traditional view, Chinese culture, the ides of destiny, divine, predict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9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